



6월 15일  
화요일

# 보도자료

생명의 땅 으뜸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실국	식량원예과	과장	박철승	팀장	최만수	☎	286-6480
----	-------	----	-----	----	-----	---	----------

## 전남도, 4월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 복구비 76억원 지원 요청

- 재해대책경영자금 217억원 지원, 기존 경영자금 178억원 상환연기와 이자감면도 요청 -

전라남도는 지난 4월 중순 도내 일부 지역에서 영하 2℃까지 내려가는 등 이상저온에 따라 배를 비롯한 과수와 밭작물 등 총 3,248ha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작물별 저온 피해면적은 배 1,534ha를 비롯 단감 278ha 등 과수가 전체 피해면적의 71%인 2,316ha로 가장 많았고, 귀리 등 맥류가 911ha 등이다.

특히 배의 경우에는 꽃이 가장 많이 피는 시기(개화 최성기)에 저온이 경과되어 나주와 영암 등지에서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 저온피해 복구비 소요액은 약 76억원으로 이중 농약대가 71억원, 50%이상 피해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비 4억원이며 복구비 이외에도 재해대책경영자금 217억원을 지원하고 기존 경영자금 178억원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도 실시한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피해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복구 지원계획을 15일 농식품부에 요청하였으며 저온피해 복구비는 농식품부의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중에 확정·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 박철승 식량원예과장은 “1월 한파피해에 이어 저온피해까지 겹쳐 많은 농가 어려움 겪고 있다” 며 “비닐하우스 설치 확대 및 방상팬 설치 등 재해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한파로 인해 겨울배추 1,857ha, 유자 866, 무화과 571, 녹차 308 등 4,475ha가 피해를 입어 복구비 148억원을 지원하였다.